

김단비밴드 '라인', 해금 선율로 새 무대 연다



위에서부터 해금 김단비, 국악타악 김현무

재치 있는 해설·진행...관객들과 호흡 전시·시음 결합 새로운 형식 공연 예고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뉨 기획공연 '문턱'...27일 보헤미안공연장서 2026 시즌 시작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뉨가 기획하는 공연 시리즈 '문턱'이 4년 차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더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인 무대다.

2026년 시즌 첫 공연인 '새로운 시작, 라인'이 오는 27일 오후 7시 광주 보헤미안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는 해금 연주자 김단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크로스오버 팀 '김단비밴드 라인'이 출연한다.

'문턱'은 '관객 입장하심다, 문턱을 낮춰라'라는 구호로 2023년 시작된 공연 시리즈다. 공연의 접근성을 낮추고 관객이 보다 편안하게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새로운 기획과 출연진, 밀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공연을 이어오며 지역 공연 문화 속에서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공연은 '문턱'이 처음 시작된 2023년 첫 무대를 맡았던 김단비밴드 라인에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공연 시리즈와 팀 모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는 자리다.

김단비밴드 라인에 해금 연주자 김단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팀이다. 김단비(해금·진행), 최옥미(대금·소금), 최민석(어쿠스틱 기타·베이스기타), 김현무(국악타악·퍼커션)가 함께한다.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팀만의 색으로 풀어내며 활동을 이어왔다.

김단비는 해금의 섬세한 선율로 감정을 풀어내는 연주자이자, 무대 위에서 재치 있는 해설과 진행으로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여 왔다. 이번 무대 역시 해금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연주에 해설과 토크가 어우러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팀 이름 '라인'은 다가올 래(來), 맑을 인(隣)을 써 '맑은 기운이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맑은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름에 담았다.

이날 공연에서는 드라마 OST인 '울인'의 '처음 그 날처럼', '신사와 아가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역적'의 '상사화' 등 친숙한 곡을 비롯해 김단비 1집 수록곡 '풀이', 2집 수록곡 '마음이 향하는 곳' 등이 연주된다. 이와 함께 신곡 '해송(가제)'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문턱' 공연은 입장권에 음료 한 잔이 포함되는 '원 프리 드링크'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객은 알코올 또는 논알코올 음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뉨는 올해 '문턱' 공연을 통해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과의 결합을 시도하며 공연의 영역을 확장해 갈 계획이다. 시음과 함께 하는 공연, 전시와 함께하는 공연 등 새로운 형식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2026년 시즌 공연은 오는 27일 공연을 시작으로 ▲7월3일 '특별한 밤의 애주가'(시음+악회, 와인 시음 포함) ▲8월28일 '나무와 풀과 꽃들'(전시+악회) ▲10월31일 '시월의 마지막'



위에서부터 대금 최옥미, 기타 최민석

밤' ▲12월11일 '미리 내 X-MAS'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티켓은 일반 2만5천원, 청소년(만18세 미만) 1만원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예당, 지역예술단체 육성사업 선정 카메라타전남오케스트라와 공동 제작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6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협력기관으로 지정돼 지역 민간 예술단체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전당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카메라타전남오케스트라와 공동 제작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총 6회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지역 전문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공연예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심의를 거쳐 카메라타전남오케스트라가 대상단체로 선정됐다.

협업 과정에서 카메라타전남오케스트라는 공연 기획과 프로그램 구성을 맡아 단체의 예술적 방향을 중심으로 공연을 선보인다. 전당은 홍보와 장신 등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공연 시리즈는 '조화(Harmony)'를 주제로 진행된다. 첫 공연은 오는 4월3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Echoes: Folk Meets Opera'로, 한국 가곡과 서양 오페라 아리아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이어 5월15일에는 콘서트 가이드 안인모가 진행하는 '인문학 콘서트'가 열려 클래식 발레 공연에 해설을 더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K-Art 청년 창작지원사업' 공모

광주문화재단, 오는 31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이 오는 31일까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시, 광주문화재단이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1986년 1월1일 이후 출생) 기초예술 분야 원천창작 청년 예술가다. 선정자는 2026-2027년 2년간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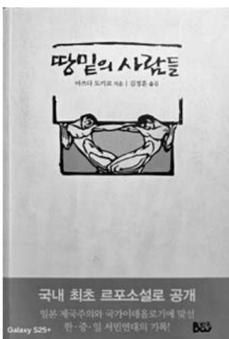
창작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과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특히 기존 실연 예술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창작자'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적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지원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전통예술) ▲기타(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전반이다. 영화·대중음악 등 대중예술 분야는 제외된다. /최명진 기자

조선인 징용피해 다룬 '땅밑의 사람들' 종장 원고 70년 만에 발견

日 아키타 문학기념실서 75매 확인...김정훈 교수 통해 국내에 최초 공개



일본 작가 마쓰다 도키코(1905-2004·사진)의 대표작 '땅밑의 사람들' 종장 원고 70년 만에 일본 아키타에서 발견됐다.

이번 발굴은 오쿠무라 하나코 야마가타대학교 특임 연구원이 주도했다.

그는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마쓰다 도키코 국제심포지엄 참석 이후 자료 탐색을 이어왔고, 아키타 오다테시 문학기념실에서 종장 원고를 확인했다.

원고는 본문 45매와 창작 메모 30매 등 총 75매 분량으로, 1951년 하나오카 광산 희생자 중국인 416위 위령제 장면으로 시작된다.

기존 작품이 1945년 중국인 노동자 학살 장



면에서 끝났던 것과 달리, 이번 종장은 그로부터 6년 뒤 이야기를 담고 있다.

희생자 추모와 전쟁 책임을 묻는 서사로 확장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고에는 '종장'이자 '제3부'로 표기돼 기존 구성과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일본 작가가 제국주의 가해의 역사를 성찰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굴은 한일 간 역사 인식과 기억 문제를 다시 환기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고는 예자키 준 '마쓰다 도키코 회' 대표 표를 거쳐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에게 전달되며 국내에 처음 알려졌다.

김 교수는 2011년 '땅밑의 사람들'을 국내에 번역 소개한 인물로, 이후에도 한일을 오가며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을 이어왔다.

김 교수는 "'땅밑의 사람들'은 제국주의 가해의 역사를 성찰한 작품"이라며 "이번 종장 발굴은 작품의 완결이 아니라 그 이후를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로, 이국 노동자들의 영혼을 달래려 한 작가의 심경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향후 원고 정밀 분석과 학술 보안을 거쳐 작품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